



열한번째 이야기

산 넘고 물 건너

[23-1 OBA 수련회 후기]

OBA 세미나는 이상하리만큼 항상 나의 기대나 expectations을 허물어뜨렸다. 매주 일요일 저녁 Zoom으로 진행된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알차고 은혜로웠다. 시험은 기대보다 훨씬 어려웠다. 토요일 진행되었던 OBA 수련회는 원래 예상했던 것처럼 야외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같은 반 학생들끼리 뭉치는 단합대회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친 일상에서 잠시 해방되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 시간은 평온했고 따스했다.



우리가 향했던 곳은 대한민국 중부 중에서도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충청북도 청주였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청주 탑동 양관'이었다. 충청도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양반스러움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런 여유로움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했다. 말씀이 바다를 건너와 해안 지역에 자리를 잡고, 다시 산 넘고 물 건너 내륙 깊숙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까. 그러는 가운데 여기 충북 청주 지역의 본격적인 선교는 북장로회 밀러(Frederick S. Miller, 민노아) 선교사가 주도하였다고 한다. 전도와

교육, 의료 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하면서 청주분들을 위해 힘쓰셨다.



청주 최초의 서양식 주택(양관, 洋館)의 멋진 모습을 보고 그 내부를 둘러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받았던 은혜와 많은 선교사의 헌신을 떠올렸다. 그와 함께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졌다.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먼저 '씨앗의 죽음'과 '그 땅의 비옥함'일 것이다. 말씀의 전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해외 선교사들의 희생과 청주 지역 선조들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 어그러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이 아름다운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대대로 고등교육기관(일신여고)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앞장서게 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에 말씀이 100배를 넘어 오만 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 강력하다. 단순히 학점을 채기기 위해 신청했던 OBA를 통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고, 그 많은 곳 중에 청주를 왔다. 4월 29일 잠시 머물렀던 청주 탑동의 경험이

나의 인생 전체,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을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한 이날의 평온하고 따스한 기억을 간직하며 나머지 OBA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자 한다.

[글쓴이 홍준표 성도]



온누리 교회 서빙고 공동체 순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2019년 겨울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뵈게 만난 이후, 여전히 죄인이고 세상의 유혹에 힘들어하지만, 자신을 통해 은혜로운 무언가를 하시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 경제평론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내와 14살 아들, 10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정리 이경주 편집 최선]

BEE 소식

-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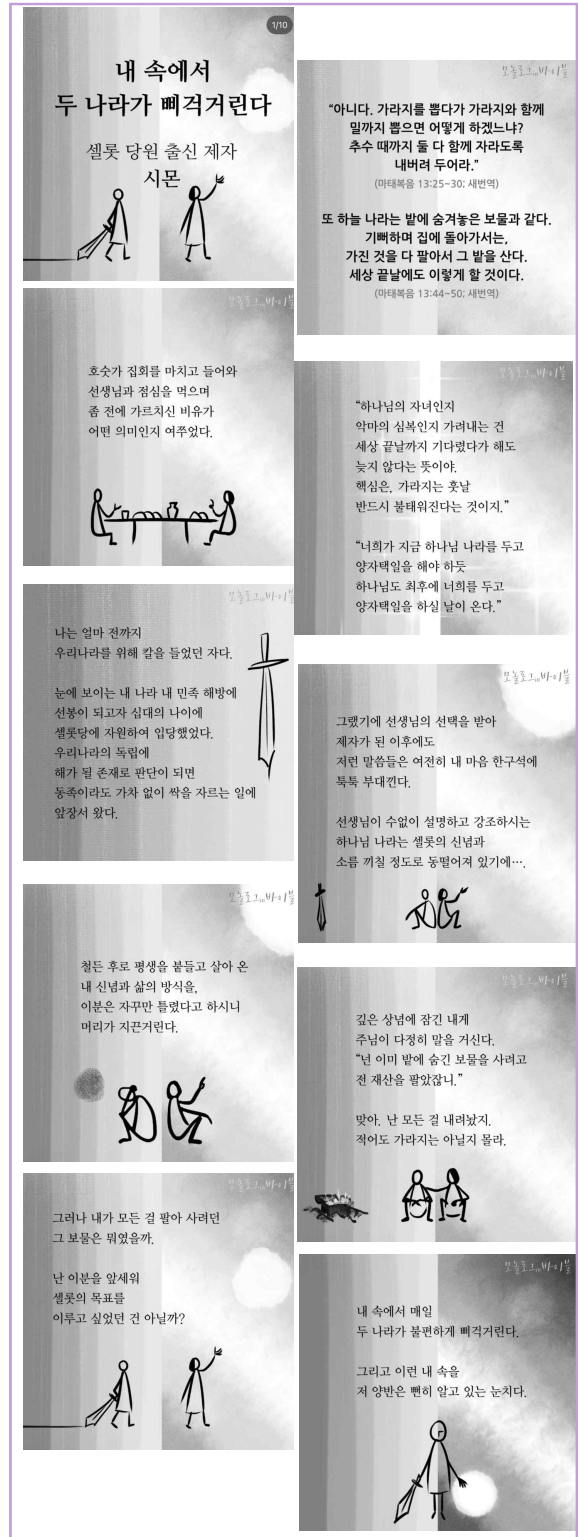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혜 있는 자나
여러색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 아프리카 현지화 사역을 위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본부로 보내주세요! 선교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 2023 '찾아온 사랑을 찾아서'-영남편이 5월 12(금)-13(토)에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온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